

한국 성인의 금융 인식과 기능과 행위에 관한 조사 결과*

한진수**

요약

금융 인식, 금융 기능, 금융 행위는 건전한 금융 생활과 금융 웰빙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 역량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다. 본 연구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2020년과 2022년에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인식, 기능, 행위를 진단한다. 우리나라 성인은 스스로 유혹에 잘 견디며, 장기 목표를 위해 부지런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부를 쌓을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주어져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물질주의에 대한 인식은 조사 시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더 장기적인 추가 조사 결과를 통해 정확한 인식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융 기능과 금융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안정적이고 확고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성인은 금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수립한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더 신뢰할 만하고 정확한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문항을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대신에 가급적 긍정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응답자들이 실수로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금융 지식이 풍부하다고 판단하는 성인이 많지 않으므로 금융교육을 통해 성인의 금융 지식을 강화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주제어 금융 인식, 금융 기능, 금융 행위, 설문조사, 금융교육

*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귀중한 자료를 기꺼이 제공해 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jshahn@ginue.ac.kr)

I. 들어가기

금융 인식, 금융 기능, 금융 행위와 태도는 개인의 건전한 금융 생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초 역량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며, 인생의 금융 웰빙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바람직한 금융 인식과 적절한 금융 의사결정에 필요한 금융 기능을 보유하고 일상 경제활동에서 금융 행위를 합리적으로 실천하는 개인은 지출 관리, 부채와 신용 관리, 투자를 비롯한 자산 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걸쳐 본인의 금융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단기 재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 인식, 기능, 행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면 개별적인 금융 소비자가 지니는 문제점과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드러난 개인의 재무 관련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금융 역량 관련 핵심 요소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해하는 일은 금융교육의 여러 과제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http://www.kfcpf.or.kr/>)은 매년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개인 금융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22년과 2024년에는 금융사기, 2023년에는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2015a, 2015b)이 개발한 금융 웰빙 측정 항목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금융 웰빙 수준을 측정한 바 있다(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2023). 한진수(2022, 2023)는 동 재단의 2020년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금융 역량 요인을 중심으로 규명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동 재단의 설문조사 자료 가운데 포함된 개인의 금융 인식, 기능, 행위 및 태도와 관련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그 조사 결과를 정리한다. 이들 항목은 2020년과 2022년 조사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에 걸쳐 조사한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인식과 행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변화 없이 안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중점적으로 비교해 본다.

개인의 금융 역량을 구성하는 하부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한 구체적인

이해는 연구자와 정부 담당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금융교육 전문가들이 금융 소비자에게 적기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내용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개인의 금융 역량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국민의 금융 웰빙을 향상하고 금융 시장과 국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도 기여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기본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성향, 돈 관리 능력과 기회 공정성, 물질주의로 구분해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금융 의사결정에서의 자신감, 정보와 조언으로 구분해 금융 기능의 조사 결과를 비교한다. 의사결정 전에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행위, 자기통제, 저축과 재 활용 관련 행위를 조사한 결과는 제Ⅴ장에서 분석하며, 제Ⅵ장으로 연구를 마무리한다.

Ⅱ. 자료

본 연구가 분석하는 자료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2020년과 2022년에 수집한 자료이며, 조사 대상자의 주요 특성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전체 조사 대상자는 2022년 2,000명, 2020년은 2,500명으로 차이가 난다. 응답자의 성비 구성은 남녀가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의 비중이 제일 크다. 이에 비해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작으며 20대 이하의 비중도 작은 편이다. 2022년 조사의 경우에는 미혼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40% 가까이 되지만, 2020년의 경우에는 30.9%로 표본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사 대상자 수가 2,000명 이상이므로 우리나라 성인의 전반적인 금융 역량 관련 하위 요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조사의 경우 대상자를 학력별로 구분해 보면, 대학교 졸업자가 1,060명(53.0%)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자(371명, 18.6%), 전문

대학 졸업자(286명, 14.3%)의 순이다. 이들의 직업은 사무직 종사자가 769명(38.5%)으로 제일 많으며 전업주부가 228명(11.4%)으로 뒤를 잇는다. 이 외에 은퇴자가 51명(2.6%), 기술직이 117명(5.9%), 관리직이 100명(5.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65.7%가 정규직 근로자였으며 기간제 근로자가 6.2%, 비정규직 근로자가 4.0%이다.

〈표 1〉 응답자 구성

구분	2022년		2020년	
	수(명)	구성비(%)	수(명)	구성비(%)
조사 대상자 수	2,000	100	2,500	100
성				
남자	994	49.7	1,249	50.0
여자	1,006	50.3	1,251	50.0
나이				
20대 이하	397	19.9	312	12.5
30대	383	19.2	582	23.3
40대	434	21.7	649	26.0
50대	441	22.1	662	26.5
60대 이상	345	17.3	295	11.8
혼인 상태				
미혼	791	39.6	773	30.9
기혼	1,117	55.9	1,646	65.8
이혼 또는 사별	92	4.6	81	3.2

Ⅲ. 금융 인식의 조사 결과

모든 조사 문항은 5단계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응답에 대해 1부터 5까지의 수치를 부여했다. 그러므로 평균값의 경우 3을 기준으로 긍정적으로 조사되었는지 부정적으로 조사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

“그렇지 않다”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 = 2

“보통이다” = 3

“그렇다” 또는 “동의한다”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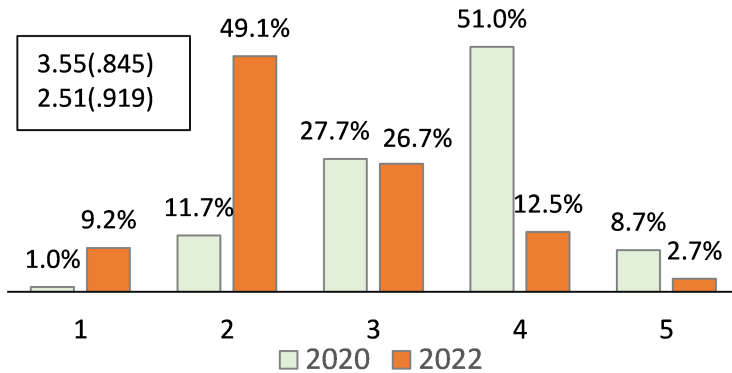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 또는 “매우 동의한다” = 5

1. 성향

평소에 하는 일반적인 행동 성향과 관련해서 3가지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나는 자주 모든 방안들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이다. 부정적인 내용으로 질문했으므로 평균값이 작을수록 방안들을 생각한 뒤에 행동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문항의 조사 결과는 연도에 따라 사뭇 다르다. 2020년에는 평균 3.55로 모든 대안을 따져보지 않고 행동한다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2022년에는 평균이 2.51로 크게 낮아져 여러 대안을 따져본 후에 행동한다는 응답자가 많아졌다(〈그림 1〉 참고). 단, 그림에 있는 박스 안의 수치는 첫째 줄이 2020년의 평균(표준편차), 둘째 줄이 2022년의 평균(표준편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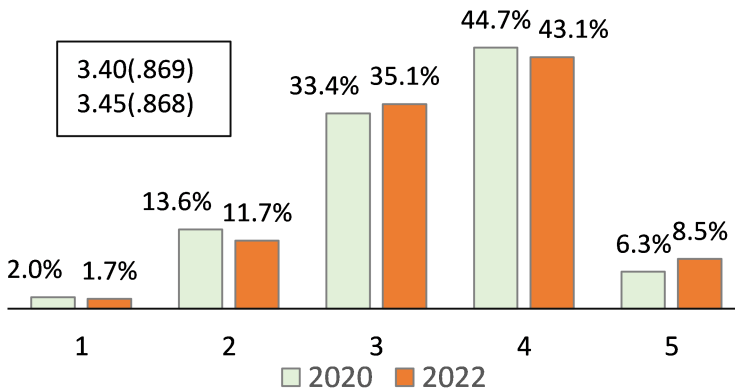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2년에는 “그렇지 않다”(=2)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2022년보다 훨씬 크다. 그렇다고 해서 2년 사이에 성향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일종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어느 해의 조사 결과가 더 진실에 가까운지는 향후 같은 문항의 조사가 추가로 더 진행된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제시한 문항의 서술 형식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부정적으로 제시된 문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이 답하는 데 혼란을 겪고 실제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반대로, 예를 들어 “그렇지 않다”를 “그렇다”로 답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



“나는 유혹에 잘 견딘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유혹에 잘 견딘다고 응답함으로써 평균이 3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20년과 2022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체로 우리나라 성인은 돈을 쓰려는 유혹을 잘 견디는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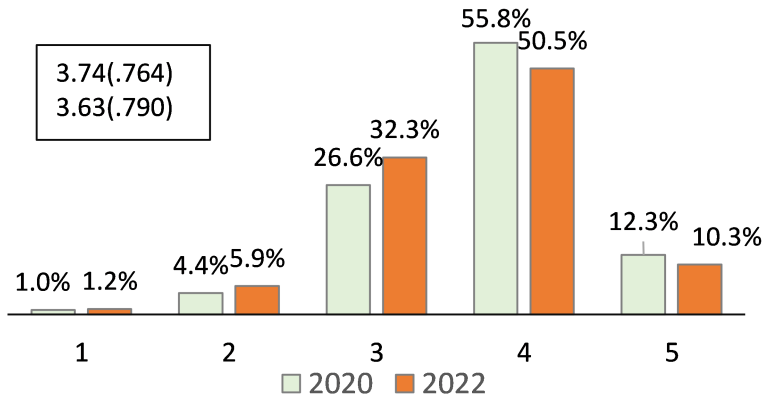
〈그림 2〉 “유혹에 잘 견딘다”에 대한 응답 결과



“나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을 보면 평균이 2020년 3.74, 2022년 3.63으로서 지금까지의 3개 항목 가운데 가장 높다

(〈그림 3〉 참고). 우리나라 성인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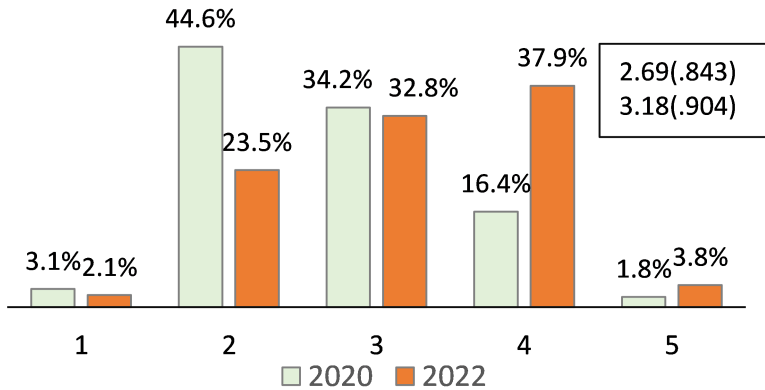
〈그림 3〉 “장기 목표를 위해 일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



2. 돈 관리 능력과 기회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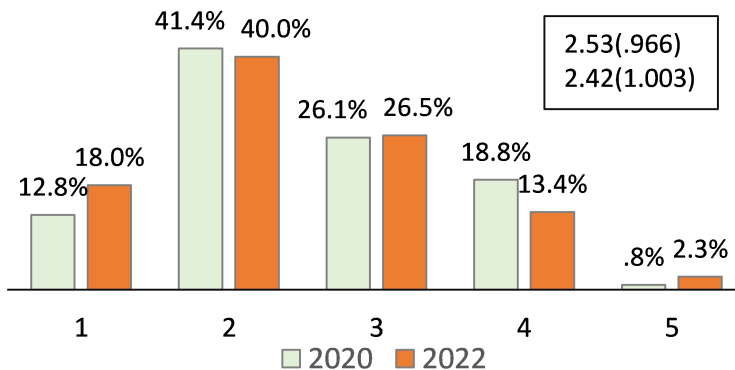
다음으로 돈 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지와 부를 축적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나라 성인의 인식을 조사했다. 먼저 “개인의 돈 관리 능력은 매우 기본적인 것으로 크게 바꾸기 어렵다”는 가설에 대한 동의 정도를 질문한 결과, 평균이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돈 관리 능력이 학습이나 경험 등을 통해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에 있듯이 실제로 2020년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 비율이 47.7%, 보통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34.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평균은 2.69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2022년 조사에서는 평균이 3.18로 크게 높아져 돈 관리 능력을 바꾸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는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일반적인 추세인지 아니면 조사에서의 오차 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추가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돈 관리 능력은 바꾸기 어렵다”에 대한 응답 결과



“경제적 부를 쌓을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주어진다”는 가설에 대한 동의 여부는 〈그림 5〉와 같다. 2020년과 2022년 모두 평균이 3에 미달하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를 축적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2020년 54.2%에서 2022년에는 58.0%로 증가했다. 부의 대물림,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의 격차 등으로 인한 부의 불균등 문제가 이와 같은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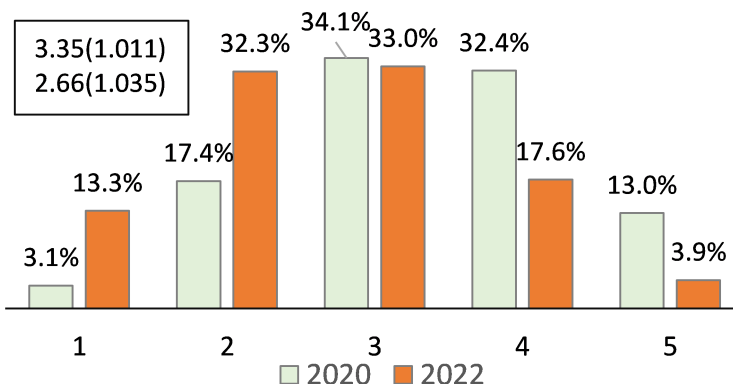
〈그림 5〉 “공정한 부의 대물림”에 대한 응답 결과



3. 물질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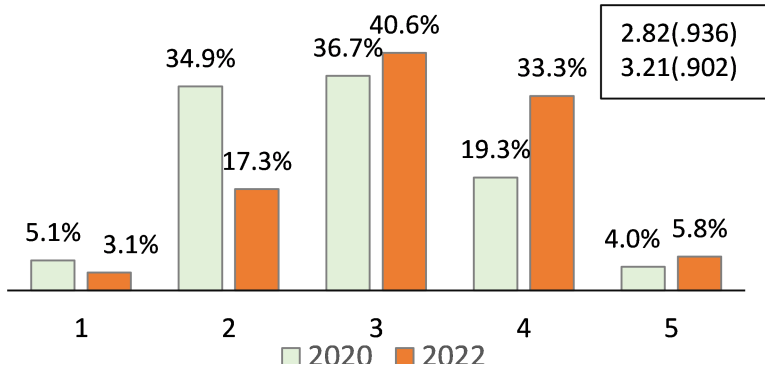
물질주의 관련 항목은 3개이다. 첫째, “나는 비싼 집, 자동차, 옷을 소유한 사람들을 존경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정규 분포에 가까운 모습으로서, 동의하는 비율과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비교적 대칭을 이룬다. 동의한다는 비율이 2020년 45.4%에서 2022년에 21.5%로 절반으로 감소한 것이 특징이며 물질주의 항목의 평균이 3.35에서 2.66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감소가 추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6> “비싼 재물의 소유주를 존경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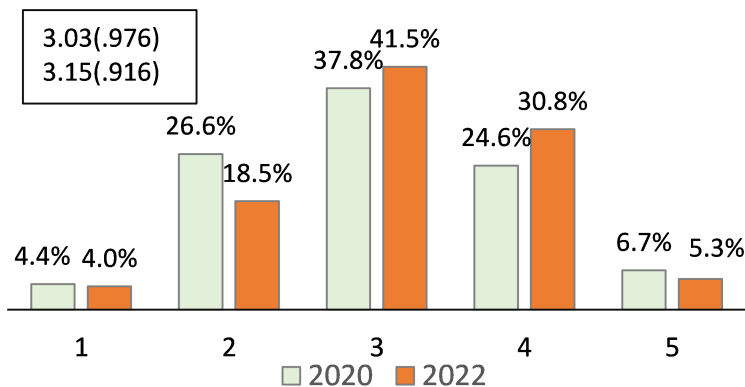
둘째,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내가 인생을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가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40%가 “보통이다”라고 했다. 이 가설에 동의하는 비율은 2020년 23.3%에서 2022년에 39.1%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 평균도 같은 기간에 2.82에서 3.21로 크게 높아진 점이 눈에 띈다. 개인의 소유 또는 재산 상태가 인생을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아진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조사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사건을 반영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영속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소유물이 인생을 나타낸다”에 대한 응답 결과



셋째, “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을 갖고 싶다”는 서술에 동의하는 비율을 보면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가 해당한다. 반면에 이 서술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 비율도 약 3분의 1에 해당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이 3에 비교적 가깝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이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가 정규 분포에 비교적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다만 2020년에 비해서 2022년에 남에게 인상을 주는 것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와 같은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 배경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이거나 통계적인 문제일 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과제라 하겠다.

〈그림 8〉 “깊은 인상 주는 것을 갖고 싶다”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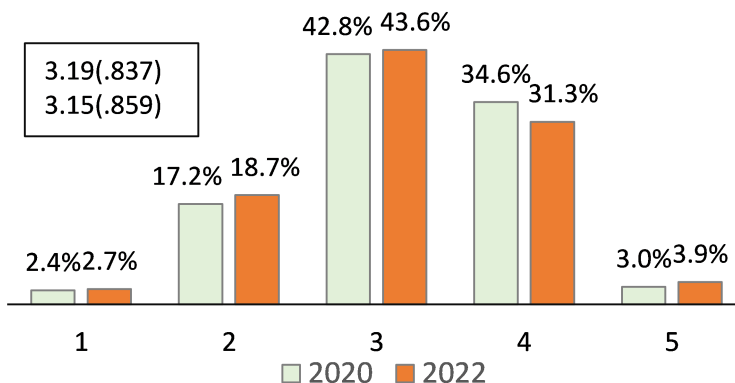
IV. 금융 기능의 조사 결과

바람직한 금융 행위를 하고 금융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금융 기능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 기능을 풍부하게 보유한 사람일수록 궁극적으로 금융 웰빙에 도달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본 연구가 분석하는 조사 자료에는 개인의 금융 기능과 관련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개인의 기능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관적 평가를 통한 조사이므로 사실상 금융 기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 금융 의사결정 자신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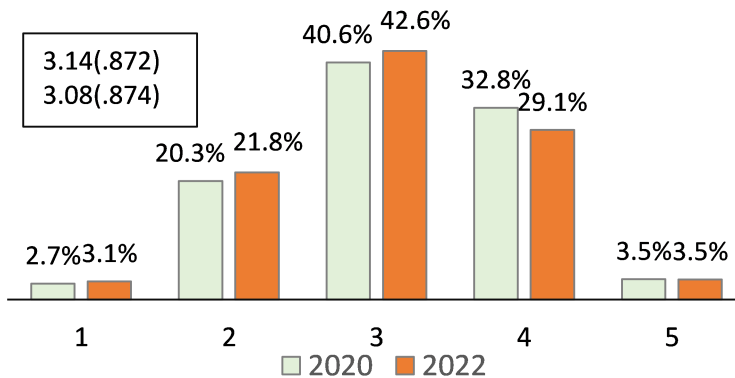
의사결정 자신감과 관련한 첫 번째 항목은 “나는 나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다”이다. 이 항목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20년과 2022년에 걸쳐 비슷하다. 각 답지별 응답 분포 역시 두 차례의 조사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9〉 참고).

〈그림 9〉 “재무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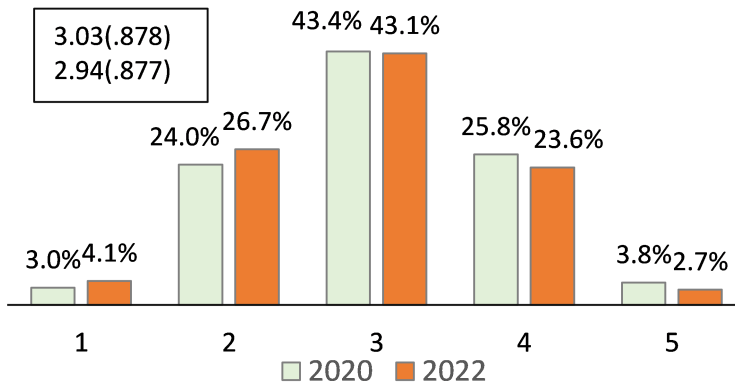
복잡한 금융 환경 속에서 개인이 돈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을 완벽하게 보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기초적인 기능을 보유하면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조언들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를 통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결과가 <그림 10>이다.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응답 분포에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관련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 금융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가와 공적 기구들을 홍보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접근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림 10> “필요한 조언을 받는 곳”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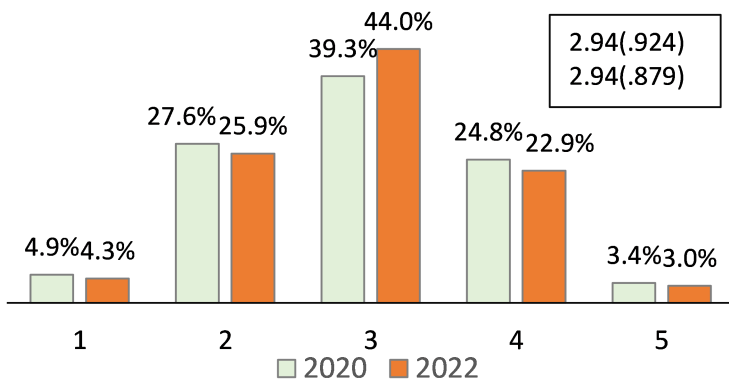
금융 기능과 관련한 세 번째 항목으로 “나는 복잡한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응답자의 약 30%가 방법을 잘 모른다고 했으며, 2020년보다 2022년의 평균이 낮아져 복잡한 금융 의사결정에 대한 기능을 습득할 필요성이 크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1〉 “복잡한 금융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



“나는 처음 해보는 새로운 금융 의사결정을 잘 내릴 수 있다”에 대해서는 〈그림 12〉와 같은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두 차례의 평균이 2.94로서 성인의 새로운 금융 의사결정에 대한 기능 관련 자신감이 부족한 편이다. “잘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보다는 “자신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금융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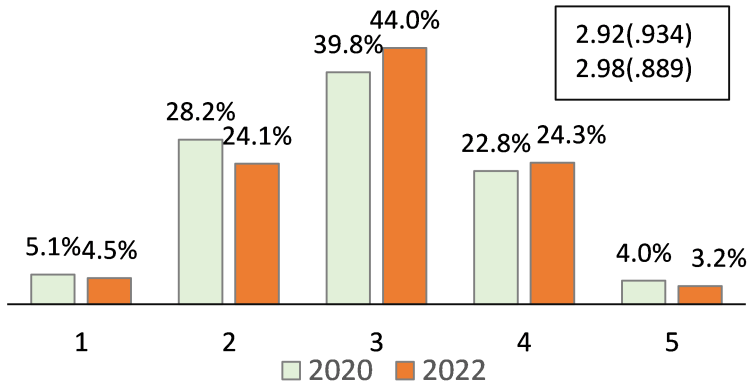
〈그림 12〉 “새 금융 의사결정”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13〉은 “나는 좋은 금융 투자 방법을 분별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평균이 3에 미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성인이 좋은 금융 투자 방법

을 식별하는 자신감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응답자 비율은 각 4.0%, 3.2%에 그치고 있다. 투자와 관련한 금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투자 자신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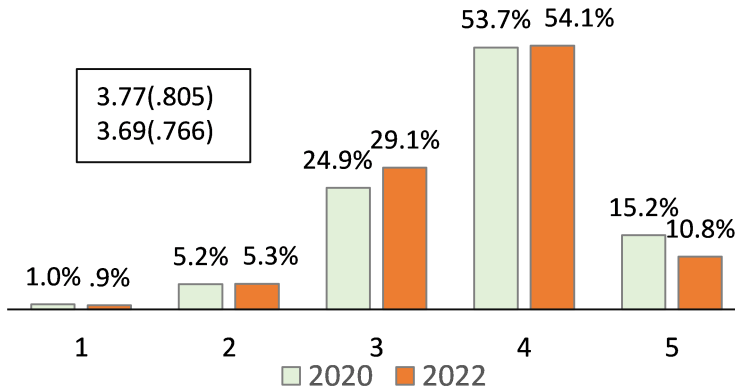
〈그림 13〉 “좋은 금융 투자 방법 분별”에 대한 응답 결과



다음으로 “나는 과소비 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그림 14〉와 같다. 지금까지의 선행 조사들을 통해 우리나라 성인은 대체로 소비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행위를 실천하고 있으며 과소비 같은 비합리적인 소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능도 보유하고 있는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과소비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이 많으며 평균이 2020년 3.77, 2022년 3.69로 상당히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선행 조사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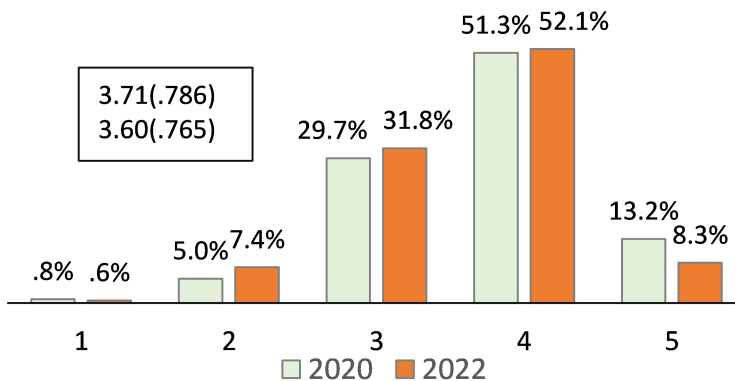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리커트 척도를 사용해 조사하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그림 14〉가 보여주듯이 과소비와 관련한 이 항목의 경우에는 “과소비 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50%를 넘어 제일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한다.

〈그림 14〉 “과소비 회피”에 대한 응답 결과



과소비와 밀접하게 관련된 지출로 저축이 있으며 둘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실제로 “나는 저축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과소비 항목의 조사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그림 15〉 참고),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해 보면 .525로 매우 높다. 이 항목의 평균도 2020년과 2022년 모두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크게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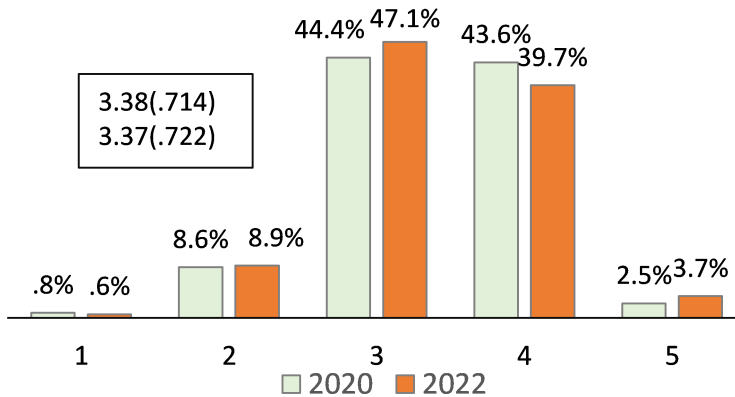
〈그림 15〉 “저축하는 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



2. 정보와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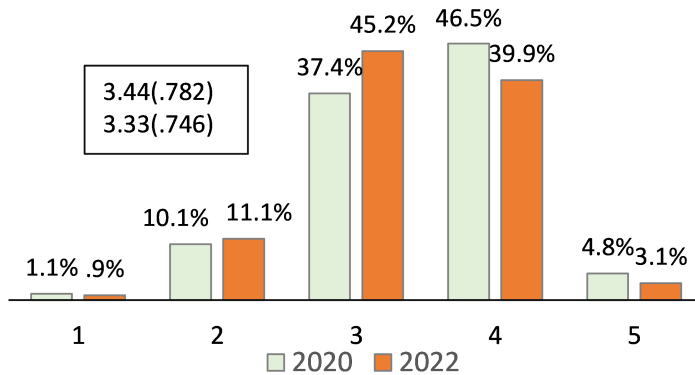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디에서 정보를 습득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내 돈과 관련된 올바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안다”를 조사한 결과가 <그림 16>이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무려 90% 넘는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에 따라 평균도 높은 편이다.

〈그림 16〉 “불충분한 정보”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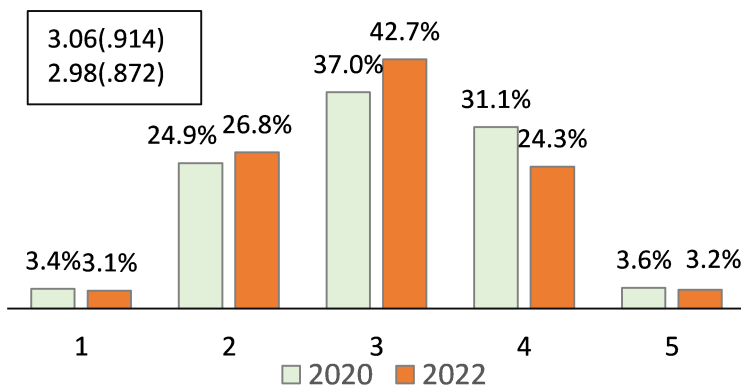
“나는 내 돈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를 안다”에 대해서는 <그림 17>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응답자의 90%에 가까운 비율로 조언이 필요한 경우를 알고 있다고 했는데, 2020년에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2년에는 “보통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제일 높다는 점이 다르다.

〈그림 17〉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응답 결과



“나는 재무 정보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에 대한 응답 분포를 정리한 것이 〈그림 18〉이다. 2020년 평균이 3.06, 2022년 평균이 2.98로서 재무 정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응답자가 상당히 존재하며 우리나라 성인의 재무 정보 파악에 대한 기능이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로부터 재무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

〈그림 18〉 “재무 정보 이해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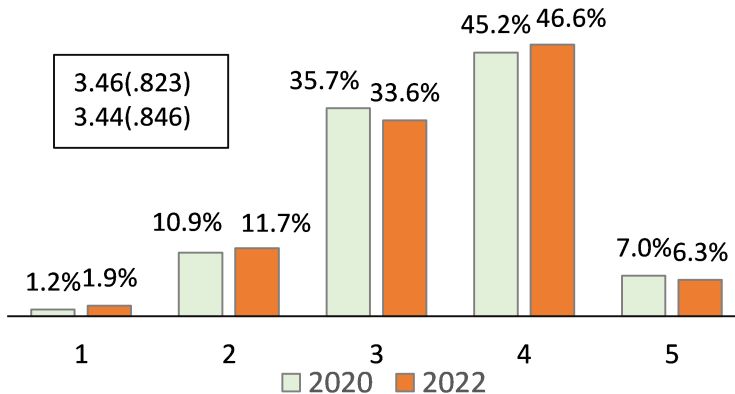


V. 금융 행위의 조사 결과

1. 연구 실행과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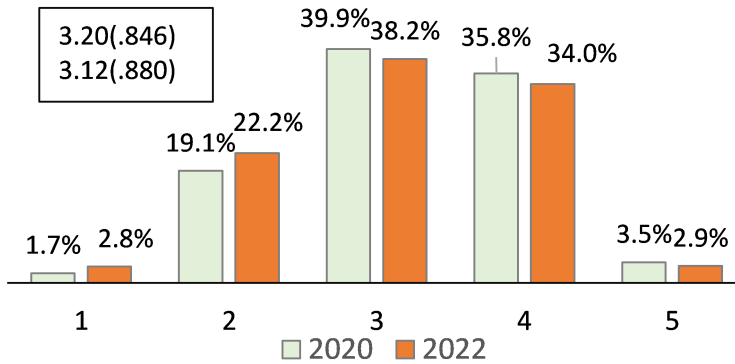
연구하는 행위와 의견을 수렴하는 행위와 관련한 항목은 두 개다. 첫 번째 항목은 “나는 금융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나만의 조사나 연구를 한다”이며, <그림 19>가 그 응답 결과를 보여준다. 금융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조사하거나 연구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항목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이며, 우리나라 성인의 성향이 돈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가볍게 내리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연도와 관계없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이러한 금융 행위가 안정적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림 19> “결정 전에 조사나 연구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



자신만의 조사나 연구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와 답을 구하지 못한다면, 전문가나 다른 사람에게서 필요한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항목은 이와 관련한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는 금융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림 20>과 같다. 전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보다 높으며 조사 연도와 관계없이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림 20〉 “결정 전에 타인의 의견을 구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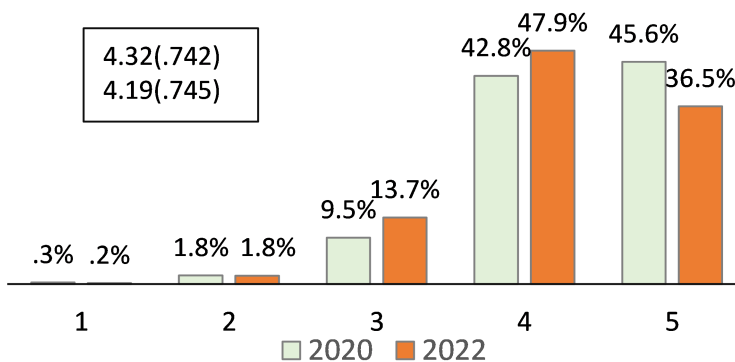


2. 자기통제

지금까지의 여러 조사에서 공통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발견한 금융 행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전 약속을 지키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성인은 빚을 우선 갚으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바람직한 행위를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도 이와 같은 결과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 금전적 약속을 지키려고 애쓴다”에 대해서 〈그림 21〉과 같은 응답 결과가 나왔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40% 내외일 정도로 매우 높으며 “그렇다”는 응답 비율까지 합하면 90%에 이른다. 이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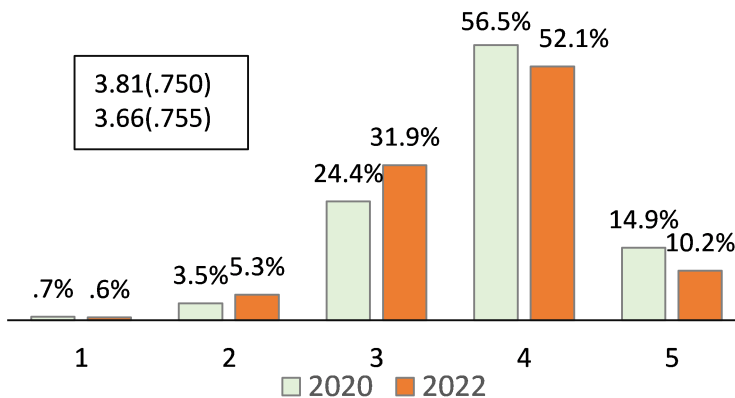
〈그림 21〉 “금전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응답 결과



응답한 비율은 2%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이 2020년에는 무려 4.32에 이르며, 2024년에는 이보다 다소 낮아진 4.19이다.

〈그림 22〉는 “나는 스스로 정한 재무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쓴다”에 대한 응답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10%를 넘을 정도로 우리나라 성인은 자신에 수립한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도 각 3.81, 3.66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 내외에 머물렀다. 금전 약속과 재무 목표를 성공적으로 지켜냈는지와는 별도로 이것들을 지키려 노력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강화될수록 실제로 금전 약속을 지키고 재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비례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림 22〉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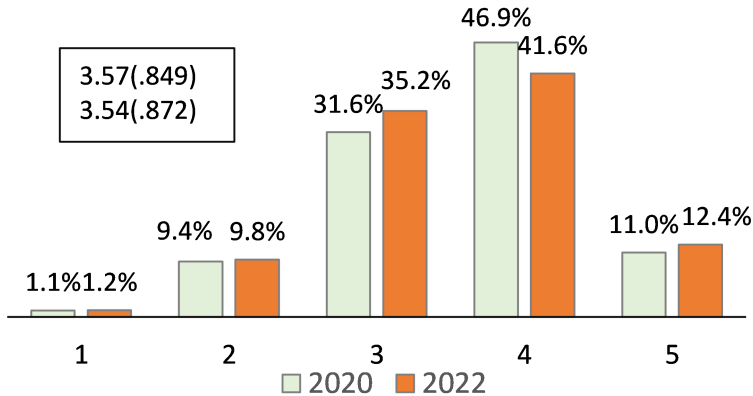


3. 저축과 재 활용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고 절약을 통해 저축을 실천하는 것은 개인 금융과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저축은 나에게 습관이다”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림 23〉과 같다. 저축이 습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 57.9%, 2022년 54.0%이다. 이 항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약 10%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저축 습관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들 가운데는 저축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저축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상당수 존재할 것이므로, 저소득층의 소득 강화를 위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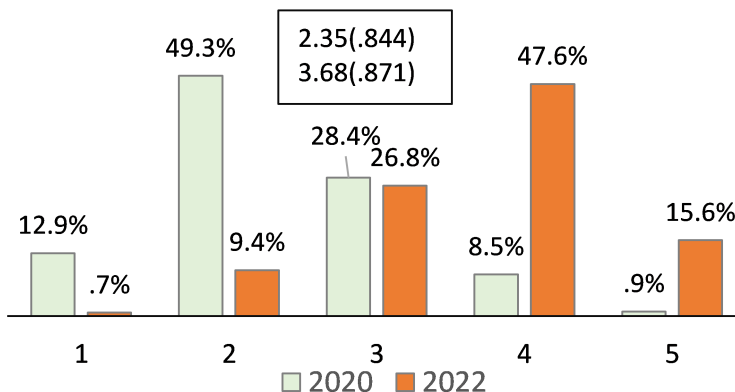
부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3〉 “저축 습관”에 대한 응답 결과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것을 구매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 〈그림 24〉이다. 한눈에 2020년과 2022년의 조사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비율이 49.3%인데 비해 2022년 조사에서는 “동의한다” 비율이 47.6%로서, 정확히 반대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매우 동의한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의 응답 비율도 그렇다. 이 문항 역시 “의미가 없다”는 부정적인 서술의 문장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재활용의 가치”에 대한 응답 결과



VI. 나가기

본 연구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개인 금융 관련 자료에서 금융 인식, 기능, 행위와 관련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대부분의 조사 문항에서 2020년과 2022년에 유사한 결과를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인식에 대한 이해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몇 개 문항에 대해서는 조사 연도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는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어느 해의 조사 결과에 더 신뢰를 두어야 할지를 판단하기 힘들다. 관련 조사를 더 긴 기간에 걸쳐 반복함으로써 해당 내용에 대한 우리나라 성인의 인식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문항의 서술 형태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문항, 즉 역코딩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언어의 특성상 부정적으로 질문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응답이 무척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루어지는 설문조사의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종이를 이용한 단시간의 응답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응답자가 최대한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응답할 수 있는 문항 설계가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이상적이다.

일부 항목은 조사 연도와 관계없이 상당히 일관되고 확고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서 조사 결과에 차이를 보이는 항목도 일부 존재한다. 후자에 해당하는 항목은 향후의 조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은 본인의 전반적인 금융 지식 수준을 보통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2020년 54.2%, 2024년 56.2%였다. 이에 비해 높거나 매우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23.9%, 23.0%에 지나지 않았다. 본인의 금융 지식이 풍부하다고 판단하는 성인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비록 겸손함의 결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지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금융교육을 통해 성인의 가장 취약한 지식, 보강이 필요한 지식, 금융 의사결정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2023). “2023년 금융웰빙 현황 조사 결과”, 9월 18일자 보도자료.
- 한진수(2022). “금융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금융 역량과 금융교육”, *교육문화연구*, 28(2), 263-283.
- 한진수(2023).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금융 웰빙 분석: 인천과 경기도 신도시 거주자를 중심으로”, *기전문화연구*, 44(1), 231-254.
- CFPB (2015a). *Financial Well-Being: The Goal of Financial Education*.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 CFPB (2015b). *Measuring Financial Well-Being: A Guide to Using the CFPB Financial Well-Being Scal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Abstract

Survey Results on Financial Awareness, Skills and Behavior of Korean Adults

Jinsoo Hahn*

Financial awareness, skills, and behaviors are key elements that constitute the financial competencies required for a sound financial life. This study analyzes data collected by the Korea Financial Consumers Protection Foundation in 2020 and 2022. Korean adults generally believe that they can resist temptations and work diligently towards long-term goals. However, they tend to disagree with the idea that the opportunity to accumulate wealth is fairly given to everyone. Perceptions of materialism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urvey period, suggesting that long-term survey results are needed to accurately determine the state of awareness. In general, stable and robust results can be confirmed regarding financial skills and behaviors. That is, Korean adults are trying to keep their monetary promises and achieve their financial goals. To obtain more accurate survey results, it is necessary to help respondents avoid making mistakes, by writing survey questions as positively as possible, rather than negatively.

Key words Financial Awareness, Financial Skills, Financial Behavior, Survey, Financial Education

투고 2024. 11. 06.

심사 2024. 12. 15.

게재 2024. 12. 23.

*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shahn@ginue.ac.kr).